

광주FC, 수원FC 원정서 무패 행진 잇는다

오늘 오후 7시30분 22라운드
최근 리그·코리아컵서 4경기 무패
다양한 공격 옵션·안정된 수비력



광주FC가 A매치 휴식
기를 마치고 상위권 도약
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다.

광주는 18일 오후 7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
그1 2025 22라운드 수원FC와 원정 경기
를 치른다.

최근 광주는 리그와 컵 대회를 넘나들
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리그에서는
최근 제주, 대전, 안양을 상대로 2승 1무
를 기록했고, 코리아컵에서는 우승 후보
울산을 꺾고 2년 연속 4강에 진출했다.

현재 리그 21경기에서 8승 7무 6패(승
점 31)를 기록 중인 광주는 5위를 달리고



광주FC가 18일 오후 7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수원FC와 원정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광주FC 신창무가 지난달 28일 FC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득점한 뒤 세레모니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있다. 3~4위권인 김천상무·포항스틸러스
와는 승점 1점 차, 2위 대전하나시티즌과
도 4점 차에 불과해 이번 경기 결과에 따

라 상위권 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광주는 최근 경기에서 공수 양면의 조
화가 어우러지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공격진에서는아사니와 헤이스 등 외국
인 자원에 더해 신창무, 정지훈 등 국내 선
수들도 꾸준히 득점을 올리며 다양한 옵션
이 가동되고 있다.

수비진 역시 국가대표로 성장한 변준수
를 중심으로 안정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경기에서 단 3실점만을 허
용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김경민 골키퍼
도 정상 컨디션을 되찾아 뒷문을 힘을 더
하고 있다.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수원FC를 꺾고
다시 연승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정효 감독은 수원FC의 전력과 약점
을 공략할 수 있는 맞춤 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당일 기온과 습도
등 체력 소모 변수도 고려한 벤치 자원 운
용 역시 중요해졌다.

이번 상대 홈팀 수원FC는 최근 3연패
를 포함해 6경기 연속 무승(2무 4패)으로

부진에 빠져 있다. 현재 승점 16점으로
11위에 머물고 있으며, 최하위 대구FC와
도 승점 차가 단 2점에 불과해 반등이 절
실한 상황이다.

수원FC는 팀의 에이스였던 안데르손
이 FC서울로 이적했지만, 검증된 공격수
윌리안, 김경민, 안드리고, 안현범, 이시
영 등 각 팀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영입하
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특히 수원FC는 최근 무승을 거둔 6경
기 중 5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을 만큼
공격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수원FC는
이번 광주전에서도 특유의 공격력을 살려
승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FC 관계자는 “휴식기를 통해 체력
과 조직력을 재정비한 만큼, 수원FC전에
서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겠다”며 “상위권
진입을 위한 중요한 일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시체육회, 온가족 사계절스포츠교실 운영

29일부터 한 달간 수영 강습

광주광역시체육회가 무더운 여름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교실을
운영한다.

광주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2025년 지자체 대상 생활·학교체
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5 온가족사계
절스포츠교실’을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염주실내수영장 등 2곳에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광
주시와 문체부가 재원을 지원하고, 광주

시체육회가 지역 특성에 맞춰 기획한 생
활체육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영 종목으로 운영되
며, 만 5~6세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생
이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됐다.

수업은 염주실내수영장과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두 곳에서 각각 20명씩 총 10
회 운영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23일까지며, 자세
한 사항은 광주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
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동한 기자



지난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여자부 대한민국 대 대만 경기. 2대 0으로 승리하며 우승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장흥서 열전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가 17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장흥군씨름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130명의 선수가 참가해 7일간 뜨거운 모
래판 대결을 펼친다.

경기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총 5개
부문에서 개인전 7체급과 단체전으로 나
뉘어 진행되며, 예선부터 8강까지는 단
판, 준결승과 결승은 3판 2선승제로 치러

진다. 모든 경기는 맞불기(토너먼트) 방
식이다.

경기 장면은 유튜브 ‘살바티비’ 채널을
통해 전 경기 생중계되며, 주요 결승전은
MBC PLUS(MBC SPORTS+)를 통해
중계된다. 특히 20일 고등부 결승 및 단체
전, 21일 중등부 단체전, 22일 초등부 단
체전 준결승·결승이 방송된다.

장흥군은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전통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동한 기자

LA올림픽 탁구, 혼성 단체전 신설

라켓 종목 6개 금메달 ‘최대’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탁구가 혼성단체전 신설로 라켓 종목 가
운데 가장 많은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국제탁구연맹(ITTF)은 17일(한국시
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8년 LA올림픽
탁구 종목이 오는 29일까지 LA 컨벤션센
터 3번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녀 단식, 남녀 복
식, 혼합복식, 혼성단체전 등 총 6개 종목
이 진행된다. 기존 남녀 단체전은 폐지되
고, 2004년 아테네 대회 이후 사라졌던
남녀 복식이 부활했으며, 혼성단체전이
처음 도입된다.

탁구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미
국 개최 올림픽 참가지만, LA에서는 처
음이다.

ITTF는 “탁구가 천사의 도시에서 새로
운 전환점을 맞는다”며 “모든 라켓 종목
중 가장 많은 금메달 수를 갖게 됐다”고 의
미를 부여했다.

한국은 복식 강국으로서 이번 대회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자복식의 임종훈-안재현(한국거래
소) 조는 최근 WTT 미국 스매시 대회 결
승에서 세계 1위 르브렁 형제 조를 3-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임종훈은 파리올림픽 혼합복식 동메달
을 따낸 신유빈(대한항공)과도 짝을 이뤄
은메달을 추가했다.

최동한 기자

한국 여자축구, 20년 만에 동아시아컵 우승

대만에 2-0 완승…1승 2무 중국·일본에 다득점 앞서

한국 여자축구가 20년 만에 동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
은 지난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
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
1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에서 대만을 2-0
으로 꺾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앞서 중국에 2-2, 일본과 1-1로
각각 비겼고, 대만전 승리로 승점 5점을
기록해 같은 승점의 중국·일본을 팀 간 다
득점(한국 3골, 중국 2골, 일본 1골)에서
앞서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한국이 이 대회 여자부에서 우승한 것
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그간 일본
과 북한이 번갈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한국은 우승 상금 7만달러(약 9700만
원)를 획득했고, 신상우 감독은 지난해
10월 부임 후 9개월 만에 우승을 이끌며
지도력을 입증했다.

한국은 이날 극적인 우승을 거뒀다. 일
본과 중국이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겨 한국은 대만을 잡을 경우 자력
으로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전반부터 거세게 몰아친 대표팀은 대만
골키퍼의 선방에 번번이 막혔지만, 후반
25분 지소연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키며 결승골을 기록했다. 후반 40

분에는 장슬기가 추가 골을 터뜨리며 승
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대만과 역대 전적
에서 15승 2무 4패를 기록했으며, 2001
년 이후 대만전 연승 행진을 15경기로 늘
렸다.

34세 베테랑 지소연은 A대표팀에서 첫
공식 대회 우승을 경험했다. 이번 대회 2
골을 기록한 장슬기는 대회 MVP로 선정
됐다. 김민정은 최우수 골키퍼상을 받았
다.

득점상은 3골을 기록한 중국의 사오쯔
진, 최우수 수비수는 일본의 이시카와 리
온이 각각 수상했다.

최동한 기자

함평군장애인체육회, 오늘 공식 출범… 장애인 체육 도약의 새 장 연다

함평군장애인체육회가 18일 오후 함평
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창립총회는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
와 전문적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
인 첫걸음으로, 함평군 장애인 체육의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총회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
해 이남오 군의회 의장, 박정현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함평교육지원

청 교육장,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 활성
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진다.

함평군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20년 군
지체장애인협회의 논의로 시작돼, 2021~
2022년 설립 건의와 2024년 간담회 및 벤
치마킹, 2025년 실무회의 등을 거쳐 약 5
년간 준비 끝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임원 구성을 마
무리하고, 상임부회장 선임과 체육회 규

약, 사무국 운영규정,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
다.

앞으로 함평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
육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성화, 우수선수 육성과 지원, 각종 체육
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장
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실현할 방침이다.

최동한 기자